

레미콘 産業動向

한국레미콘공업협회 기획조사부

1. 概 況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6.5~7%선에서 머물 전망이다. 레미콘 산업은 분당, 일신, 산본(군포), 평촌(안양), 부천 중洞 등 경인지역의 5개 신도시 건설사업과 대규모 서해안 개발 등에 힘입어 상당한 신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토개발 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건설산업은 공공건설부문의 투자확충과 APT, 상가건축등을 중심으로 16~18%의 실질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레미콘 산업도 전반적인 건설경기의 성장세 이외에도 현55% 수준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멘트 內需量의 레미콘 전환률을 감안할 때 향후 2-3년간은 견실한 증가세를 이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신규업체의 참여가 앞으로 2-3년간 상당히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대한 적절한 대책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레미콘 산업은 현재 고도성장기에 속해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시장구조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5-6년 후에는 레미콘 출하의 증가율 및 업체의 가동률등이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시장구조의 혼란과 레미콘 품질수준의 저하 및 기술개발 미비가 큰 문

제점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레미콘 업계의 전반적인 어려운 골재 부족현상이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탄력성이 적은 모래의 수급이 큰 현안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레미콘산업이 균형적인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장의 적정분포와 골재수급문제의 해결이 기본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에도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해지고 있다.

2. 全國 業體 現況 및 3/4分期 出荷 實績 分析

1) 全國 業體 現況

■ 89년 9월말 기준 전국 레미콘 생산업체는 2/4분기보다 8개업체 11개 공장이 증가한 총 167개 업체 259개 공장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대구, 경북지역에는 5개 공장이 신·증설되어 앞으로 물량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 전국적인 레미콘 생산능력은 시간당 44,014㎥로 2/4분기보다 1,680㎥가 증가되었으며 연간으로 볼때 8,802만 8천㎥에 달해 내년에는 최초로 1억㎥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레미콘 믹서 트럭 보유대수는 2/4분기

<표 1> 89년 3/4분기중 신·증설 업체 현황

지역	업체명	공장명	B/P	R/T
강원	(주)정신레미콘	임계	60	-
"	덕원산업(주)	원주	120	16
충북	(합)한일레미콘	제천	120	12
전북	라제산업(주)	무주	90	7
전남	현대산업(주)	나주	120	16
대구	삼도건설(주)	성서	120	10
경북	한성레미콘(주)	경산	120	13
"	(주)경북실업	달성	120	8
"	영진레미콘	칠곡	120	5
"	신진콘크리트(주)	군위	90	13
경남	정암산업(주)	고성	120	15
"	(주)고려레미콘	함안	120	15

註) 덕원산업(주)는 舊 한일공업(주) 원주공장임

보다 213대가 증차된 7,041대로 집계되었으며 최근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심지의 교통체증 및 통행제한으로 인하여 레미콘 트럭의 하루 운송 횟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3/4分期 出荷實績 分析

■ 89년 3/4분기중 전국레미콘 총 출하실적은 1,298만 3692㎥로 작년동기 대비 20.9%의 증가를 시현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의 성장률인 11.98%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중 서울, 경인지역이 65개공장에서 3/4분기동안 559만 2,7983㎥의 레미콘을 출하하여 전국물량의 43.08%를 점유하였으며 대구, 부산지역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물량이 10~15% 정도 감소되어 전반적인 경기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반기와 대비하여 3/4분기중의 성장률이 비교적 높은것은 민간 건설부문에서 주택, 콘도, 오피스텔, 상가신축공사등이 호조를 보이는데

<표 2> 각 지역별 출하실적 및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

지역	89년 3/4분기	증감률	89년 1~9월	증감률
서울·경인	5,592,763	17.57	15,262,885	13.48
강원	619,372	60.12	1,453,680	53.37
충북	616,154	47.94	1,618,081	41.02
대전·충남	1,006,287	25.16	2,628,479	15.21
전북	448,686	10.70	1,053,634	1.7
광주·전남	1,147,084	53.29	3,002,081	39.72
대구	436,534	▼10.33	1,208,794	▼13.75
경북	955,774	41.84	2,408,854	22.08
부산	624,760	▼14.18	1,828,254	▼14.47
경남	1,342,070	8.14	3,781,611	9.41
제주	194,188	65.27	447,906	23.38
전국	12,983,692	20.87	34,714,259	14.35

다가 상반기에 부진했던 도로포장등의 관급물량이 하반기에 많이 발주된데에 기인한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치적으로 보면 민수부문은 작년 3/4분기와 비교하여 25.27%, 관수부문은 6.57%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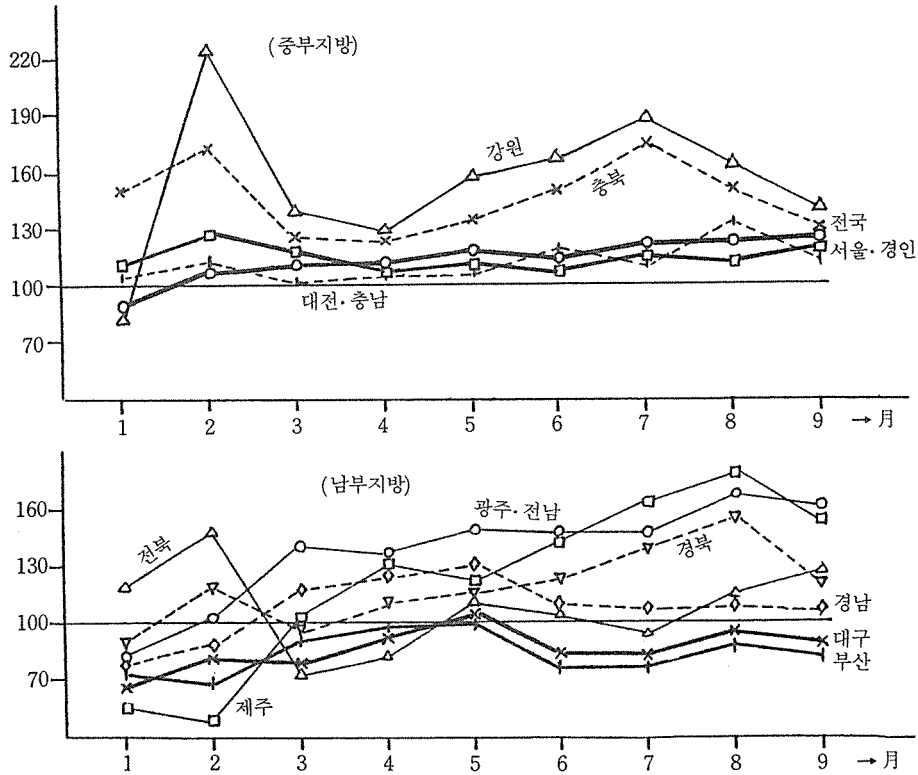
■ 전국적인 가동율을 살펴보면 7월 44.16%, 8월 55.13%, 9월 48.2%를 기록하여 종래의 관념과는 달리 레미콘 타설작업이 계절적 영향을 탈피하여 가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볼때는 대구지역이 3/4분기 동안 가동율 27.77%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으며 강원지역은 가동율 39.55%로 예년에 비해 레미콘 경기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 <그림1>은 각 지역별 금년도 레미콘 산업 경기지수를 도시한 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강원, 충북, 전남지역이 작년보다 큰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 89년 1~9월 출하실적을 토대로 한 각 지역별 면적 1㎡당 및 인구 만명당 레미콘 사용량을 보면 <표 3>와 같다.

서울, 경인지역은 그 시장규모에 부합하여 면적대비 레미콘 사용량이 타지역의 5~6배에



<그림 1> 89년 각지역별, 月別 레미콘 경기지수

<표 3> 각 지역별 면적 및 인구대비 레미콘 사용량 (단위: ㎡)

지역	'89년 1~9월 출하실적	면적 1㎞당 레 미콘 사용량	인구 만명당 레미콘 사용량
서울·경인	15,282,885	1,308.7	8,748.5
강원	1,453,680	86.0	8,398.4
충북	1,618,081	217.6	11,624.8
대전·충남	2,628,479	296.9	8,703.7
전북	1,053,634	130.9	4,870.6
전남·광주	3,002,081	244.6	7,862.8
대구·경북	3,617,648	181.8	6,866.6
부산·경남	5,609,865	455.5	7,608.9
제주	447,906	245.4	8,799.9
총계	34,714,259	349.9	8,1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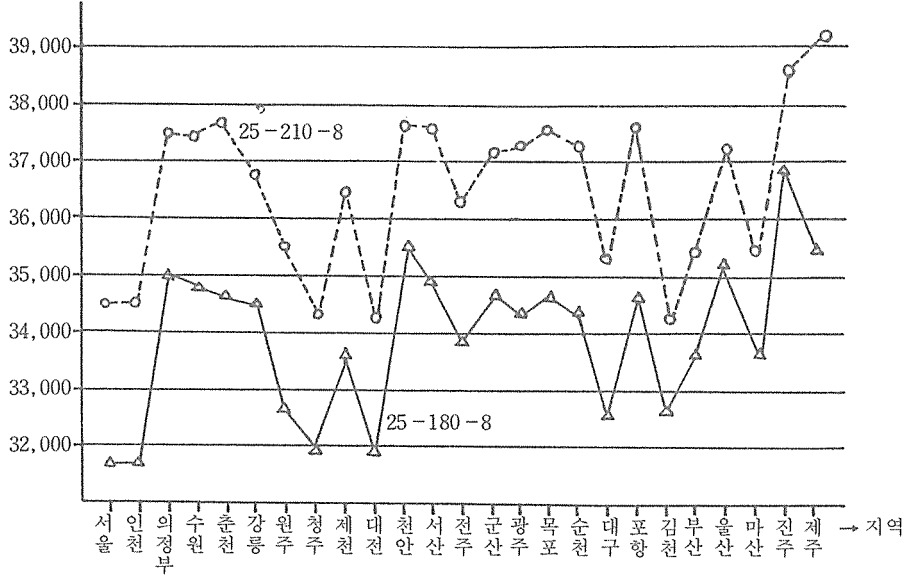
달하나 인구 1인당 레미콘 사용량은 0.875㎡로 지방과 거의 대등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全國 地域別 價格 動向 分析

■ 지역별 민需레미콘 가격동향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5-180-8 규격의 경우 진주지역이 36,9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5-210-8의 경우는 제주지역이 39,091원/㎡로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다.

■ 전국적으로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의 차이는 ㎡당 4000~5000원선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격(단위: 원/m³)



<그림 2> 지역별 레미콘 평균판매가격 추이

는 골재 및 시멘트등 원자재의 수송운임비 격차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4. 90年度 레미콘 産業展望

(1) 개요

건설협회에 따르면 향후 국내 건설 경기는 건설비 40조원 내외에 이르는 200만호 주택건설계획과 정부가 주도하는 대단위 계획사업으로인하여 오는 92년도까지는 연평균 10%이상의 성장이 가능할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도별로는 90년 10.7%, 91년 8.9%, 92년 10.2%의 성장을 예상하였다.

또한 국토개발 연구원에서도 건설경기 확산지표의 변동을 분석한 결과 오는 92년도 전반기까지는 지금같은 건설경기의 호황세가 지속될 것이며, 1992년도 하반기에 정점을 이룬후

점차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부문별로 볼때 건축공사가 급신장이 예상되는 반면 公共 및 土木工事 部門은 절대량이 감소할것으로 보았으며 내년도의 경우 공공부문은 12.7%, 토목은 3.9%정도의 감소를 예측했다.

국내건설경기 동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레미콘 산업도 향후 건설경기의 활황 및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의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된다고 하겠다.

반면에 중소기업의 대량 신규참여가 가속화되고 골재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가동률저하와 가격경쟁에 의한 채산성 악화가 표면화될 전망이다.

(2) 레미콘 공장수 및 생산공급능력 예상

내년도 레미콘 업체 및 공장의 증가수를 예

<표 4> 지역별 규격별 레미콘 가격실태

(원/㎥, 부가세 별도)

지 역 별	25-180-8	25-180-12	25-210-8	25-210-12	40-180-8
서울·인천	31,830	32,460	34,410	35,440	30,670
의정부지역	35,000	35,620	37,530	38,550	33,860
수원지역	34,830	35,460	37,410	38,410	33,670
춘천지역	34,700	35,400	37,600	38,700	33,500
속초·강릉지역	34,500	34,800	36,800	37,200	33,300
원주지역	32,780	33,430	35,440	36,500	31,590
청주·충주지역	31,960	32,530	34,210	35,070	30,920
제천지역	33,760	34,430	36,500	37,590	32,530
대전지역	31,960	32,530	34,210	35,070	30,920
천안지역	35,460	36,030	37,710	38,570	34,420
서산지역	34,960	35,530	37,210	38,070	34,420
전주지역	33,921	34,401	36,275	37,269	32,704
군산지역	34,700	35,200	37,050	37,980	33,550
광주지역	34,360	35,000	37,220	38,080	33,160
목포지역	34,660	35,300	37,520	38,380	33,460
순천지역	34,360	35,000	37,220	38,080	33,160
대구지역	32,520	32,950	35,310	36,440	31,410
포항지역	34,671	35,511	37,600	38,786	33,505
김천지역	32,640	33,150	34,260	35,070	31,130
부산지역	33,630	33,990	35,410	35,810	33,200
울산지역	35,240	35,620	37,250	37,670	34,790
마산지역	33,630	33,990	35,410	35,810	33,200
진주지역	36,900	37,200	38,600	39,200	35,600
제주지역	35,455	36,364	39,091	39,636	35,000

측하여 보면 최근 3, 4년간은 연간 20~30여개의 공장이 증설되었으나 금년 10월말 현재 35개 이상의 공장이 신규로 참여하였으며 또한 4/4분기 및 내년사이에 무려 70~80여개의 업체가 새로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레미콘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더라도 기존업체와 신규업체간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인지역이 서보산업의 23개사, 강원지역이 동신콘크리트의 10개사, 충북지역이 태양레미콘의 5개사, 대전·충남지

역이 서해산업의 8개사, 전북지역이 광산레미콘의 7개사, 광주·전남지역이 신동양산업의 16개사, 대구·경북지역이 동화레미콘의 8개사, 부산·경남지역이 대하레미콘의 7개사, 제주지역이 삼다레미콘의 2개사 등이 금년 4/4분기 및 내년도에 신규참여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같이 내년도에는 서울, 경인지역과 전남지역이 신도시건설과 서해안 개발에 따라 공장수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레미콘 출하량이 증가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1개 공장당 출하실적은 오히려 정체 내지는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업체간 판매경쟁 및 골재등 원자재 수급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가동율도 5~7%정도 하락되어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될 전망이다.

레미콘 산업에의 대량 신규참여로 인하여 내년도 전국 레미콘 총 생산능력은 금년보다 20%이상 증가하여 연간으로 볼때 1억 600만^m에 달할 전망이다 레미콘 믹서트럭 보유대수 또한 9천 100여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5> 90年度 年間 豫想 레미콘 生産능력

(단위 : 천^m)

지역	'89년 연간 생산능력	예상증가율	'90년 연간 생산능력
서울·경인	32,180	13.9	36,653
강원	5,220	37.9	7,198
충북	4,460	24.2	5,539
대전·충남	8,328	19.5	9,952
전북	3,238	44.5	4,679
광주·전남	8,470	40.4	11,892
대구	5,240	9.2	5,722
경북	7,844	18.4	9,287
부산	2,980	8.1	3,221
경남	8,448	19.2	10,070
제주	1,620	14.8	1,860
전국	88,028	20.5	106,073

註) ① 89년은 9월 현재 90년은 12월말 예상치임

② 연간 생산능력의 예상은 각 지역별 내년도 예상 신규 공장수에 각 공장당 90^m/hr의 생산능력을 감안하여 산정한후 지역동향 및 자료의 신빙성에 따라 ±5%내외의 오차를 적용하였음.

(3) 레미콘 출하실적 예상

레미콘 산업의 향후 경기예측은 업계의 시설투자방향 및 원활한 시장경제 형성등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레미콘 산업은 최근 수개년간 연평균 25%내

외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며 또한 종래의 현장 콘크리트에서 레미콘으로의 전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나 각종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때 향후 4~5년 후부터는 국내 건설경기의 동향에 전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레미콘산업의 성장률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여러방안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1. 최근 3년간(87~89) 전국 및 각 지역별 연평균 성장률을 산정하여 이 수치를 내년도 기본 성장률로 가정한다.
2. 최근 지역별 점유비 및 레미콘 성장률 추세를 파악한 후 이에 따라 기본성장률을 1차 보정한다.
3. 지역별 인구 1인당 레미콘 사용량 및 레미콘 전환률을 감안하여 2차 보정을 행한다.
4. 내년도 지역별 대규모 계획사업 및 민간건설 정보에 따라 신규 창출 물량을 예상한 후 이에 따라 3차 보정을 행하고 이를 내년도 최종 예상 성장률로 한다.

<표 6>는 최근 5개년간의 시멘트 내수량의 레미콘 전환률을 표시한 것이다.

<표 6> 시멘트내수량 및 레미콘 轉換率

(단위 : 千톤)

年度	시멘트 內需量	레미콘 제조용 시멘트 소비량	전환률 (%)
1985	18,976.3	7,354.7	38.8
1986	20,387.4	8,813.6	43.2
1987	22,755.2	10,800.8	47.5
1988	26,202.0	13,319.4	50.8
1989(예상)	27,400	15,301.8	55.8
1990(예상)	29,000	18,310.1	63.1

<표 7>은 최근 3개년간의 전국 및 지역별 레미콘 출하실적과 성장률을 표시한 것이다.

위표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서울, 경인 지역은 연 10%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강원, 충북, 전남지역이 고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반면에 대구, 부

<표 7> 지역별 레미콘 출하실적 및 성장률

(단위 : ㎥, %)

구 분	87	88	89(예상)
서울·경인	16,925,090(16.5)	18,182,967(7.4)	20,540,000(13.0)
강원	888,199(57.0)	1,380,325(55.4)	2,062,000(49.4)
충북	1,112,135(26.4)	1,684,690(51.5)	2,424,000(43.9)
대전·충남	1,963,943(27.3)	3,116,381(58.7)	3,630,000(16.5)
전북	1,063,213(26.4)	1,433,138(34.8)	1,490,000(4.0)
광주·전남	2,475,712(27.4)	3,007,881(21.5)	4,120,000(37.0)
대구	1,459,678(27.9)	1,844,267(26.4)	1,607,000(▼12.8)
경북	1,736,934(27.5)	2,764,139(59.1)	3,516,000(27.2)
부산	2,233,977(8.2)	2,886,455(29.2)	2,502,000(▼13.3)
경남	3,513,798(43.9)	4,848,060(38.0)	5,312,000(9.6)
제주	380,007(66.9)	474,905(25.0)	615,000(29.6)
합	33,752,626(22.6)	41,623,208(23.3)	47,818,000(14.9)

註) ()안의 수치는 작년 대비 증가율임.

<표 8> 지역별 90년도 예상 성장률 및 출하실적

지 역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	성장률 추 세	보정			최 종	90년도 예상 예상 성장률
			보정1	보정2	보정3		
서울·경인	12.3	△	+1	-1	+5	17.3	24,093.000
강원	53.9	○	0	-1	-15	37.9	2,843.000
충북	40.6	○	0	-5	-10	25.6	3,044.000
대전·충남	34.1	▽	-5	-1	+3	31.1	4,759.000
전북	21.7	▽	-3	+5	+5	28.7	1,918.000
광주·전남	28.6	△	+1	+1	-5	25.6	5,174.000
대구	13.8	▽	-10	+3	+5	11.8	1,796.000
경북	37.9	▽	-5	+1	-10	23.9	4,356.000
부산	8.0	▽	-10	+3	-8	▼7.0	2,326.000
경남	30.5	▽	-8	-3	-5	14.5	6,082.000
제주	40.5	○	0	-1	-5	34.5	828.000
계	20.3					19.7	57,219.000

註) 성장률 추세는 △(상향세), ○(지속세), ▽(하향세) 임.

산동 대도시를 중심으로한 영남지역은 레미콘 물량의 증가세가 둔화 또는 감소추세가 나타나고 있는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최근 성장률 추세 및 지역별 대규모

계획사업등을 감안하여 보정한 최종 예상 성장률은 <표 8>과 같다.

따라서 내년에는 총 5천7백만 ㎥ 내의의 레미콘 출하실적을 달성하여 금년 대비 20%의 성

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月別 出荷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전국 및 서울, 경인지역의 月別 예상 출하량은 다음과 같다.

5. 新都市 建設 및 서해안 開發과 레미콘 需給展望

(1) 신도시 건설과 레미콘 수급전망

<표 9> 90년도 월별 예상 출하실적 (단위: ㎥, %)

月 別	서울·경인	전 국
1月	521,000(2.16)	1,465,000(2.56)
2月	675,000(2.80)	1,734,000(3.03)
3月	1,980,000(8.22)	4,538,000(7.93)
4月	2,609,000(10.83)	5,660,000(9.89)
5月	2,802,000(11.63)	6,135,000(10.72)
6月	2,711,000(11.25)	6,060,000(10.59)
7月	1,944,000(8.07)	4,796,000(8.38)
8月	2,168,000(9.0)	5,167,000(9.03)
9月	2,390,000(9.92)	5,323,000(9.31)
10月	2,371,000(9.84)	5,739,000(10.03)
11月	2,173,000(9.02)	5,808,000(10.15)
12月	1,749,000(7.26)	4,789,000(8.37)
計	24,093,000(100)	57,219,000(100)

註) ()안의 수치는 서울·경인 3년간 전국은 최근 5개년간 月別 출하비율임. 단 서울·경인지역은 최근 추세를 감안하여 1, 2월 출하비율에 +0.5%를 보정하였음

내년도 서울, 경인지역의 레미콘산업은 일산, 분당 등지의 신도시 건설산업의 본격화에 따라 최대의 호기를 맞을 전망이다. 정부의 200만호 주택 건설계획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 신도시 건설산업은 그 규모 및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최소한 89년 실적 대비 8~10%정도의 레미콘 신규물량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은 기본적으로 90~92년의 3개년동안 분당 9만7천 500호 일산 7만 5천호 등 총 17만 2천 500호(평촌, 산본, 중동지구 제외)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추정공사액이 건축부문만 4조 9천 790억에 달하는 거대한 project이다.

신도시 건설기간중 90년 2월~92년 5월까지 28개월 동안에 레미콘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며 APT 및 부대건설공사에 총 1.180만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일산, 분당 기준)

이 수치는 과거 실적으로 보아 예정공사액중 레미콘 타설에 사용된 비용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며 산출근거는 <표 10>과 같다.

또한 신도시 건설에 따른 레미콘 수요량을 연도별로 예상하여보면 90년도에 465만 ㎥, 91년도 507.4 ㎥, 92년도 211.4% ㎥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1일 예상 소요량은 분당의 경우 11,332 ㎥, 일산의 경우 8,401 ㎥으로 나타났다.(연도별 예상 물량은 90년 11개월, 91년 12개월, 92년 5개월의 비율로 환산한 것임)

원자재 수요현황을 살펴보면 골재의 경우 3

<표 10> 신도시 건설공사 예상 레미콘 소요량

구 분	예정 공사비(단위: 억원)			예정 공사비 중 레미콘 타설 비율	레미콘 타설 비용(단위: 억원)	예상 레미콘 소요량(단위: 만 ㎥)
	일 산	분 당	계			
A P T	15,500	21,040	35,640	5.9%	2,102.8	700.9
비주택	5,890	8,260	14,150	4.8%	679.2	226.4
토 목	7,070	9,990	17,060	4.5%	767.7	255.9
계	28,460	38,390	66,850		3,549.7	1,183.2

년간 1,468.12만㎡가 필요하며 시멘트는 벌크의 경우 레미콘 제조용으로만 3,788.7천 M/T정도가 신도시 개발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공급면을 볼때 분당지역의 경우는 성남, 안양, 수원 등지에 20여개 공장이 가동중에 있고 공급반경내 공장들의 하루 생산능력이 5만~5만5천㎡, 수송능력이 3만5천㎡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상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산지역의 경우는 주위에 2개 공장 밖에 없어 레미콘 공급이 문제가 되었으나 최근 파주군 교화면, 월동면 부근에 10여개 이상의 업체가 허가 신청을 해놓고 있어 공급상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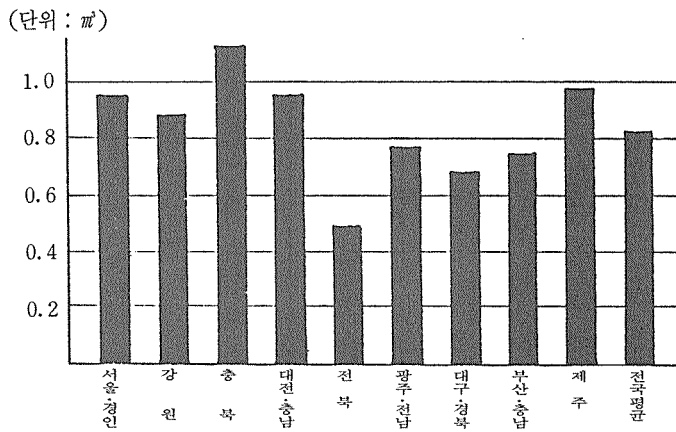
다만 레미콘 트럭의 부족으로 인한 운반능력의 한계가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신도시 건설사업 완료후 신규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2) 서해안 개발 사업과 레미콘 수급전망

서해안 개발 사업은 2000년대의 중국 대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는 2001년까지 126건의 개발 사업에 총 22조 3천133억원을 투자하게 되는 원대한 계획사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인지역에 17건 4조6천905억원, 충남에 33건 4조7천288억원, 전북에 30건 4조533억원, 전남지역에 43건 5조9천186억원, 기타지역 3건 2조9천221억원이 각각 투자될 계획이다.

서해안 개발에 따라 레미콘 산업도 지금까지는 서울, 경기 및 영남지역에 집중되었던 레미콘 수요를 벗어나 앞으로는 영남지역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 예상되는 반면 충청 및 전라도 지역의 출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3> 지역별 인구 1인당 레미콘 사용량

<표 11> 레미콘 출하실적의 지역별 점유비

(단위: %)

구분	서울·경기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제주	계
'86	52.76	2.05	3.20	5.60	3.05	7.06	4.14	4.94	7.50	8.86	0.83	100
'87	50.14	2.63	3.29	5.82	3.15	7.33	4.33	5.15	6.62	10.41	1.13	100
'88	43.68	3.32	4.05	7.49	3.44	7.23	4.43	6.64	6.94	11.65	1.14	100
'89 (1~9月)	44.02	4.19	4.66	7.57	3.04	8.65	3.48	6.94	5.27	10.89	1.29	100

<표 11>은 최근 4년간 전국출하실적의 지역별 비율이며 <그림 3>은 지역별 인구 1인당 레미콘 사용량을 나타낸 것이다.

위 표에서 보느냐와 같이 86년도에는 서울·경인 및 영남지역이 전국 물량의 78.2%를 점유하였으나 89년 9월말 현재 70.6%로 점유비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서해안 개발에 소요될 레미콘 예상량은 줄잡아 3,700~4,000만㎍ 정도로 연간 400만㎍ 내외의 레미콘이 투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서해안 지역에 이러한 레미콘 경기의 호조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충청남도 및 전라도 지역에 상당한 수의 레미콘 공장이 증설될 예정이어서 업계의 채산성은 그리 향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6. 原資材 需給 展望

1) CEMENT 産業

양회협회 및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국내 시멘트 수요는 올해보다 6%정도 증가한 2,900만톤에 달할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중 레미콘 제조에 사용될 양은 1,900만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연간 시멘트 생산능력은 10개사에서 총 3,150만톤에 이르고 있으나 내년 이후의 수요에는 공급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업계에서는 이미 연간 생산능력 5천만톤을 목표로 기존설비의 개체 및 신, 증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설비증설이 조기완공을 추진하더라도 대부분이 90년도 하반기에 완공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시멘트 수급상의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으며 올림픽 特需 때와 같이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공급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공급난도 염려되고 있다.

따라서 시멘트 업계에서는 내년도 내수량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수출량을 억제하기로 하였으며 동절기의 비수기에도 생산라인을 풀가동

하여 충분한 재고량을 비축할 계획이다.

<표 12> 시멘트 업계의 생산능력 확충계획

(단위 : 만톤)

업 체 명	현 재 생산능력	신·증설	완공예정년도
쌍 용	1,268	80	90년말
동 양	500	330	90년말
한 일	291	155	90년말
아 세 아	215	180	90년말
현 대	290	360	91년초
한 라	118	330	91년초
성 신	329	80	90년초
한국고로	100	120	90년말
고 려	120	-	-
유 니 온	10	-	-
합 계	3,241	1,635	

2) 骨材産業

레미콘 제조에 사용되는 골재의 양은 우리나라 골재 수요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장차 레미콘 산업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골재 수급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수도권지역의 골재 수요량은 매년 연평균 10%이상씩 증가되고 있으나 경기도 미사(溟沙) 지역 및 한강골재의 점진적 고갈과 대체 채취원 개발의 미비로 자체공급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충북등지에서 수송되어 오던 골재도 당해지역의 골재 소비 증가 및 지방의 골재 공급난으로 점차 반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지역의 골재 수요량의 자체 조달비율은 약 30~40%로 알려지고 있으며 내년도 수도권지역 골재 소요량은 레미콘 제조용 2천 900만㎍을 비롯해 총 4천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강종합개발 감리단의 레미콘 공업협회 용역사업 결과에 의하면 수도권 지역의 골재 부존량은 하천골재 6억 7653만㎍을 비롯하여 총

11억 2,305만㎡(粗骨材 6억 621만㎡ 細骨材 5억 1684만㎡)가 매장되어 있으며 이중 이용 가능량은 7억 8377만㎡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표 13> 수도권 지역 골재 소비량 및 수요예측
(단위: 천㎡)

구분 연도	레미콘용	기 타	계
1980	10,592	16,652	27,244
1985	14,819	20,894	35,713
1988	23,908	10,130	34,038
1990	29,075	11,289	40,364
1993	32,586	12,332	44,918
1996	35,467	13,249	48,716

<표 14> 수도권 지역 골재 부존량 및 이용가능량
(단위: 천㎡)

구 분	부 존 량	이용 가능량
하천골재	626,533	409,896
육 골 재	77,514	4,875
석 산	240,000	240,000
해 사	129,000	129,000
계	1,123,047	783,771
개발제한구역	255,884	126,742
일반구역	867,163	657,029

앞으로 골재 수급문제는 향후 예상되는 골재 파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골재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지역은 적절한 대책방안을 강구한 후 점차적으로 골재 채취가 허용되어야 한

다고 본다.

또한 골재 부존량이 풍부한것으로 확인된 남한강 하류등 새로운 골재 채취원의 확보가 시급하며 골재 채취에 제한요소로 작용하여온 하천법(河川法)등 22개 골재관련 각종법안의 통합조정 필요성도 현안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7. 맺음말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우리 레미콘 산업은 향후 2-3년간 건설 경기의 활황과 더불어 무난한 성장이 예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성장에 가려져 등한시되고 있는 점을 든다면 무엇보다도 관리업무의 소홀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앞으로는 업체간 과당경쟁 및 무분별한 공장 신·증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건설업체 자체 Plant 규제방안과 향후 PC(precast concrete) 및 철골조, FRP등 대체 구조재의 수요증가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레미콘의 배합설계, 제조, 운반, 타설, 양생에 이르기까지 레미콘품질의 계속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고 깎자갈, 해사, 혼화재료의 사용방안 및 콘크리트의 중성화, 유동화콘크리트, 고강도콘크리트, 섬유보강콘크리트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국의 레미콘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기술개발 및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레미콘 공동 시험연구소가 가까운 장래에 설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겠다.